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27.(목)	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김연준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훈 (02-2100-2953) 이정민 (02-2100-2982)
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서승리 (02-2100-2993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준환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황준하 (02-3145-8050)
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길성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문재희 (02-3145-6773)

##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「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」

- 기업부문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
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-

### 1

### 추진 배경

-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\*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\*\*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

\* (은행권 기업여신 잔액) '21말 1,445.6조 → '22.3월 1,493.0조 → '22.6월 1,557.4조(21말比+111.8조)

\*\* (예대율 규제) 원화대출금/원화예수금 ≤ 100%

- 이에, 금융위원회(위원장: 김주현)와 금융감독원(원장: 이복현)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.

## 2

## 유연화 조치 세부내용

◆ 국내규제이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출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 하되, 금융시장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조치(예: LCR, NSFR 완화 등)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① 예대출 규제비율을 한시적(6개월+α)으로 완화합니다.(은행 105%, 저축은행 110%)

○ (조치내용)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출 규제비율을 은행 100% → 105%, 저축은행 100% → 110%로 완화\*합니다.

\* (유연화 조치 사례)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·저축은행 예대출 규제비율을 각각 105%, 110%로 완화('20.4월 ~ '22.6월)

-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(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)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,

○ (기대효과) 예대출 규제 완화로 ①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②수신경쟁 완화\*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\* (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, %) (9.28.) 3.83 → (10.7.) 3.99 → (10.18.) 4.72 → (10.25.) 5.40

② 은행 예대출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\*을 제외합니다.

\*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○ (조치내용) 은행 예대출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(한은 차입금 한도)하여 은행의 예대출 버퍼를 확대합니다.

- 현재 예대출 산출시 <sup>(i)</sup>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<sup>(ii)</sup>금융중개 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출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\*하기 위함입니다.

\* 현재 새희망홀씨대출,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출 산정시 기 제외중

○ (기대효과) 예대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3

### 향후 계획

□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.

- ① 규제비율 완화 ➡ 10월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
  - ② 산정방식 정비 ➡ 10월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 후  
「은행업 감독규정」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\*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.

\*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(10.20일 발표)